

# ‘저출산’ 해결 나선 韓 기업들, 출산 축하금·장학금 등 주목

국내 기업들 출산·육아 지원책 마련 현대차, 첫째~셋째이상 지원금 확대 포스코, ‘육아기 재택근무제’ 도입

현대자동차와 포스코 등 국내 기업들이 심각한 사회 문제인 초저출산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출산 준비부터 육아까지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책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린이집 확대, 승합차 선물 같은 실질적인 혜택을 제동하는 등 다양한 대책들을 선보이며 모범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다. 2022년 0.78명 보다 0.06명 감소해 역대 최저를 기록하며 OECD 회원국 중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올해는 지난해 보다 상황이 더 좋지 않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는 6만47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3994명(6.2%) 감소했다.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1분기 기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 문제



현대자동차 노사가 지난해 8월 전주공장에 근무 중인 8자녀 직원 가족을 방문하고 승합차 ‘스타리아’를 비롯한 4200만원어치의 선물을 전달했다. /현대자동차

는 단순히 인구 감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구 소멸에 따른 지방 소멸, 경제 인구 감소에 따른 저성장과 그에 따른 국가경쟁력 감소 등 대한민국의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이에 현대차그룹은 ‘저출산·육아지원 노사 TFT’를 구성, 직원들의 출산장려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직원들의 출산 축하금을 기존 100만원에서 첫째 300만원, 둘째 400만원, 셋째 이상 500

만원으로 확대했으며 직원들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4세부터 5세까지 자녀에게 2년 동안 월 10만원씩 총 240만원을 지원하고 자녀의 학교 입학 시 바우처를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 중이다.

포스코그룹도 결혼부터 육아까지 임직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가족출산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선 직원이 결혼을 하면 결혼 축하금을 200만원 지원하고 신혼여행지원금을 200

만원 지원한다.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며 첫째는 300만원, 둘째부터는 500만원을 준다. 이에 더해, 아기와 첫 만남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50만원 상당의 상품권도 추가로 선물한다.

특히 포스코는 2020년부터 ‘경력 단절 없는 육아기 재택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자녀당 최대 4년 사용할 수 있고, 단축근무와 연계해서 하루 4시간 또는 6시간만 근무할 수도 있다. 아울러 포스코는 자녀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2자녀 기준 8000만원, 3자녀 기준 1억2000만원, 4자녀 이상 1억600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그 결과 포스코 직원들의 평균 자녀 수는 2022년 1.51명에서 지난해 1.54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에도 1.55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타이어 유통 전문기업 타이어뱅크도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캠페인’을 시작했다. 타이어뱅크의 출산장려 캠페인은 첫째~셋째 자녀 출산 부모에게 타이어 구매 가격의 50% 할인 혜택, 넷째 자녀 이상 출산 시에는 지

정 품목에 한해 타이어를 무상 제공하는 대국민 출산 가정 지원 프로젝트다. 출산장려 캠페인 참여는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모바일 쿠폰(50% 할인권 또는 100% 무료교환권)을 발급받아 전국타이어뱅크 매장에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타이어뱅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기업 내부 직원들의 출산 독려도 이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은 바로 부영그룹이다. 부영그룹은 직원들의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자녀 1인당 출산장려금 1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2021년 1월 이후 자녀를 출산한 직원 가족에게 자녀 1인당 1억원씩 총 7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큰 화제를 모았다.

세계 관계자는 “인구 감소는 국가경쟁력 감소 등 대한민국 존폐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별 다양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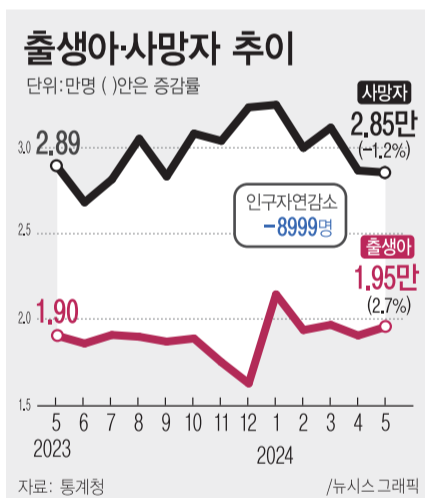
## ‘8년여 만에’ 출생아 수 2개월 연속 증가

통계청, 2024년 5월 인구동향 출생아 2.7% ↑... 혼인증가·기저효과 혼인 2만건 돌파... 전년비 21.6% ↑

국내 출생아 수가 8년여 만에 처음으로 2개월째 늘어났다. 이는 코로나19가 완화한 2022~2023년 사이 혼인 건수가 증가한 영향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이 24일 발표한 ‘2024년 5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5월 출생아 수는 1만9547명으로 1년 전 같은 달에 비해 2.7%(514명) 증가했다. 올해 4월 1만9049명으로 전년대비 2.8% 늘어난 데 이어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는 2015년 10~11월 이후 8년6개월 사이 첫 사례다.

통계청 관계자는 “출생아 수가 두 달 연속 증가했다”며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2022년 8월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혼인 건수가 전년동월 대비 늘어난 효과가 첫째로 이어지며 증가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코로나19 기간 묶였던 혼인이 늘면서 2~3년차 신혼부부의 출



산이 통계에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또 지난해 4월 출생아 수의 큰 폭 감소(-12.5%) 등 기저효과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를 뜻하는 조출생률은 4.5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늘었다. 5월 사망자 수는 2만8546명으로 전년대비 1.2%(339명) 줄었다. 인구 1000명당 사망자 수를 뜻하는 조사망률은 6.6명으로 1년 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출생아 수가 늘었지만 인구는 여전히 자연감소를 이어 갔다. 5월 자연증가(출생아-사망자)는 -899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1~5월로 따지면 전국에서 총 5만1761명의 인구가 자연감소했다. 이러한 인구 자연감소 현상은 2019년 11월부터 55개월째 지속됐다.

혼인 건수도 2개월 연속 증가했다. 5월 혼인 건수는 2만923건으로 전년동월 대비 21.6%(3712건) 증가했다. 지난 4월에도 혼인 건수는 1만8039건으로 24.6%(4565건) 늘어났다. 1~5월 누계 혼인건수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세종을 제외하고 모두 증가했다. 대구에서 4092건으로 19.6% 증가해 가장 높았고 대전이 2786건으로 같은기간 17.2% 늘었다.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4.8건으로 전년대비 0.8건 늘었다.

5월 이혼 건수는 7923건으로 1년 전보다 5.6%(470건) 감소했다. 조이혼율은 1.8건으로 전년대비 0.1건 줄었다.

## 중·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2000억 공급

중기부,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중소벤처기업부가 민간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를 위해 이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하는 정책자금을 이달 31일부터 2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이번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이달 초 나온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에 신속 공급을 완료한 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의 지원대상을 기존 NCB 744점 이하 저신용자에서 NC B 839점 이하 중·저신용자까지 늘렸다. 대표자 개인신용평점이 NCB 839점 이하면서 업력 90일 이상이고 신용관리 교육을 사전이수한 소상공인이라면 최대 30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세급채납, 연체, 휴·폐업, 용자 제외업종, 부채비율 및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은 신청이 제한된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직접대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1.6%p를 가산한 변동금리(3분기 5.11%)로 5년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지원하고 대출 1년 경과 후 신용도가 개선된 소상공인이 신청하면 금리를 0.5%p 낮춰준다.

중·저신용 소상공인 자금은 본 신청·접수 외 예비 접수를 도입해 접수마감 이후 대출포기 등 신청취소가 발생하면 차순위 예비 신청자에게 심사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대출심사부터는 소진공 직원이 소상공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대표자 면담 및 경영상태를 확인하는 현장실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승호 기자

## 올해 상반기 中 小 수출 571억 달러... 전년비 4.4% ↑

중기부, 1~6월 수출 동향 발표

올해 상반기 중소기업 수출이 571억 달러(약 79조1863억원)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 효자 품목은 화장품이었고, 수출 1위국으로 미국이 올라섰다.

2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4년도 상반기 및 2분기 중소기업 수출 동향’에 따르면 1~6월 중소기업 수출액은 57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지난해 4분기(1.6%) 플러스(+) 전환에 성공한 중소기업 수출은 올해 1분기에 이어 3분기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월별로는 1월 증가폭이 18.4%(14억4000만 달러)로 가장 컸고, 4월이 10.1%(9억2000만 달러)로 뒤를 이었다.

수출 참여 중소기업 수는 전년 동기 대비 1.2%(949개) 늘어난 7만7078개사로 역대 상반기 최고치를 찍었다. 수출 규모 기준 100만 달러 미만 기업이 6만7801개사로 88.0%를 차지했고, 5000만

달러 이상 기업은 73개사로 조사됐다. 10대 수출 품목 중 8개는 전년 대비 확대로 증가세를 견인했다.

특히 화장품의 행보가 눈에 띄었다. 화장품은 전년대비 30.8% 증가한 33억1000만 달러로 상반기 최고 수출 품목에 이름을 올렸다. 글로벌 K뷰티의 수요 급증 및 미국, 중국과 더불어 신흥시장으로 수출국을 다변화한 것이 상반기 최대 실적으로 이어졌다.

/김승호 기자 bada@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협력사 ESG 경영 지원에 나섰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인천공항공사와 ‘2024년 협력사 ESG 지원사업’ 참여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최근 미국 커뮤니케이션 연맹(LACP)이 주관하는 ‘2022~23 비전 어워드’에서 2022~2023년에 시행한 주요 ESG 경영 내용과 성과를 담은 ESG보고서를 지난해 10월 발간, ESG보고서 부문 ‘대상(Platinum)’을 수상하는 등 ESG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동반위 사업에 참여하

는 인천공항공사는 항공산업 분야 우수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반위는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라 협력 중소기업의 맞춤형 ESG 지표를 선정, ESG 교육·진단·현장실사(컨설팅) 등 협력사의 ESG 경영 실천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ESG 지표 준수가 우수한 협력사는 동반위로부터 ‘ESG 우수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고, 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은 ▲금리우대(신한·기업·경남·국민은행) ▲해외진출 지원사업 우대(KOITA, KOICA) ▲환경·에너지 기술지원(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